‘초특급 유망주’ 이강인, 발렌시아와 2022년까지 재계약

바이아웃 1057억원…‘발렌시아의 보물’ 방증

기존 바이아웃 금액의 8배 훌쩍
1군 훈련 합류…프리시즌 소화
성인무대 적응 통한 성장 기대

초특급 유망주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발렌시아 구단은 21일(한국시간) “이강인(17·발렌시아B)과 재계약에 사인했다. 계약기간은 2022년까지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스페인 대부분의 스포츠 언론들은 발렌시아와 이강인의 재계약 뉴스를 크게 다뤘다.

이번 계약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바이아웃 금액이다.

발렌시아와 이강인은 계약서에 바이아웃 금액을 설정했는데 무려 8000만 유로(한화 약 1057억7000만원)에 달한다. 쉽게 말해 이강인을 영입하려는 타 구단은 발렌시아에 최소 8000만 유로의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발렌시아가 이강인의 성장 가능성을 그만큼 크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전 계약에서의 바이아웃 금액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하지만 스페인의 한 언론은 이전 계약 당시 바이아웃 금액이 1000만 유로(약 132억원) 정도로 설정돼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사실이라면, 새 계약으로 기존보다 무려 8배 금액이 올랐다.

다른 한 가지는 1군 훈련 조기 합류다. 발렌시아는 이번 계약을 맺으면서 이강인에게 곧바로 1군 합류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강인은 조만간 시작하는 발렌시아 1군의 프리시즌 일정을 소화한다. 그렇다고 이강인이 2018~2019시즌에 곧바로 1군 선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발렌시아는 이강인에게 조기 1군 합류의 기회를 주면서 성인무대를 향한 적응력을 서서히 갖추도록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발렌시아가 이강인의 성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꾸준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강인에게 스페인 귀화를 추천했을 정도로 이강인을 성공적으로 육성해 1군 무대까지 지속적으로 보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또 대한축구협회가 테스트 차원으로 이강인의 23세 이하(U-23) 대표팀 차출을 요청했을 때 발렌시아는 이를 거부했다. 이유는 선수보호였다. 이강인은 후베닐A와 발렌시아B를 오가며 2017~2018시즌을 뛴 직후 한국 U-19 대표팀의 일원으로 프랑스에서 열린 툴롱컵에 참가했다. 이 일정에 이어 또 다시 테스트 차원에서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합류하면 선수가 체력적으로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한 발렌시아가 차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었다. 그만큼 발렌시아가 이강인을 육성하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 많은 관심과 노력을 펼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스페인 발렌시아 구단은 21일(한국시간) ‘특급 유망주’ 이강인과 재계약을 공식 발표했다. 계약기간은 2022년까지다. 발렌시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이강인에게 곧바로 1군 합류의 기회도 주기로 했다.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벌써 3연패…제주가 심상치않다

조성환 감독

“후반기에는 MF 싸움” 조 감독 반전 승부수

제주 유나이티드는 최근 흐름이 좋지 않다. 21일 강원FC와의 19라운드 원정경기에서는 1-3으로 패했다. 이번 패배로 제주는 최근 3연패 포함, 4경기 무승(1무3패)의 부진에 빠졌다. 2위까지 올랐던 순위 표에서도 내리막을 걷고 있다.

제주는 후반기 승부수를 미드필더 활용에 걸었다. 제주를 이끌고 있는 조성환(48) 감독은 월드컵 휴식기 동안 팀 전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했다. 그는 수비 틀 변화에 대해서도 고심했다. 제주는 조 감독이 팀을 맡은 이후부터 스리백을 주요 수비 포메이션으로 활용해왔다.

조 감독은 “월드컵 휴식기 동안 스리백을 포백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코칭스태프와 상의도 했다. 그러나 시즌 중간에 수비 틀에 변화를 주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수비 변화 대신 미드필더 활용을 넓게 가져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조 감독은 “공격 숫자를 높일 때는 미드필더 진영을 역삼각형 형태로 가져가고 거꾸로 수비 중심일 때는 미드필더들을 밑으로 내려 5백 형태로 서는 부분을 준비했다. 수비 중심이 되면 역습을 노린다던지, 상대 팀에 따라 변화를 주거나 경기 상황에 맞게 바꿀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고 설명했지만 아직까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당장 제주는 연패를 끊고 반전을 가져가는 것이 시급하다. 오는 29일 울산 현대를 비롯해 FC서울(8월 4일), 포항 스틸러스(8월 11일) 등 승점 차이가 크지 않은 팀과의 맞대결이 예정되어 있다. 조 감독은 “패한 경기는 빨리 잊고 승리를 통해 분위기를 바꿔나가겠다”며 선전을 다짐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제리치, 반환점 16골…‘데얀 31골’ 넘을까

〈강원FC〉

제주전 멀티골…득점랭킹 1위
K리그 최다 득점 신기록 도전

KEB 하나은행 K LEAGUE 1 2018

강원FC의 최전방 공격수 제리치(26·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가 꾸준한 득점페이스로 K리그 신기록에 도전하고 있다.

제리치는 21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스타디움에서 열린 ‘KEB하나은행 K리그1 2018’ 19라운드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에서 후반 22분 교체로 출전해 결승골 포함 2골을 책임지며 팀의 3-1 승리를 견인했다. 시즌 15·16호 골을 연달아 성공시킨 그는 K리그1 득점랭킹 1위를 굳게 지켰다. 2위권과의 격차가 커 당분간은 선두자리를 쉽게 내주지 않을 전망이다.

팀당 38경기를 소화하는 올 시즌 K리그1은 이번 주말 경기로 정확이 전체 일정의 절반을 소화했다. 제리치는 19경기에 출전해 16골로 경기당 0.84골의 엄청난 득점 페이스를 선보이고 있다. 그가 현재의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K리그 역대 한 시즌 최다인 32골을 터트릴 수 있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온다.

K리그 역대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은 데얀(37·수원 삼성)이 보유하고 있다. 데얀은 FC서울 소속이었던 2012년 총 41경기에 출전해 31골을 터트렸다. 경기당 0.74골. 2012년 K리그는 승강제가 실시되기 이전으로 해당 시즌 16팀이 경쟁을 해 경기수가 더 많았다. 당시는 팀당 44경기를 치렀다.

경기 수는 6년 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제리치는 데얀보다 월등한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다. 경기당 득점이 월등하게 앞선다. 제리치가 뛴 19경기 중 3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그만큼 꾸준하게 골을 성공시키고 있다. 해트트릭도 한 차례 기록했다. 최근에는 폭염 속에서도 2경기 연속 2골을 넣으면서 더위에도 강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제리치는 득점 뿐 아니라 수비 공헌도도 뛰어난 선수다. 많은 활동량을 통해 강력한 전방 압박에도 적극 가담한다. 그 덕분에 강원은 상대 수비를 빠르게 압박하는 전술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 팀 내에서는 그의 체력을 걱정하지만 제리치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 덕분인지 상대 수비수들의 집중 견제에도 꾸준한 득점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다. 최용석 기자

강원FC 공격수 제리치가 21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스타디움에서 열린 ‘KEB하나은행 K리그1 2018’ 19라운드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서 골을 터뜨린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2위 지킨 경남, 지난 시즌 K리그2 팀 맞아?

2위 경쟁 수원과 사투 끝 무승부
휴식기 이후 5경기 3승2무 분전

‘KEB하나은행 K리그1 2018’은 전북 현대의 독주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전북은 이미 2위권 팀들에 승점 10 이상 앞서 선두 독주 체제를 굳건히 하고 있다.

이 가운데 2위권 싸움은 그야말로 혼전이다. 경남FC, 수원삼성, 제주 유나이티드 등이 매 경기 승패에 따라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21일 창원축구센터에서 펼쳐진 경남과 수원의 맞대결은 경기 결과에 따라 흐름이 바뀔 수 있는 한판이었다. 이 경기에서 경남은 수원과의 사투 끝에 2-2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승점 1을 추가한 경남은 9승6무4패(승점33)를 기록하면서 3위 수원(9승5무5패)에 승점1 앞선 2위 자리를 지켰다.

아직 시즌 일정이 한참 남은 상태지만, 경남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놀랍다. 지난해 K리그2에 있던 팀이 맞나 싶을 정도다.

시즌을 거듭할수록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거꾸로 더 강해지는 모양새다. 월드컵 휴식기 이후 치른 5경기에서 3승2무의 성적을 거뒀다. 2위 경쟁권에 있는 제주, 수원과는 무승부를 거뒀고 순위표 아래쪽에 있는 포항 스틸러스(7일 2-0승), 인천 유나이티드(14일 3-0승), 상주 상무(18일 1-0승)에게는 내리 승리했다. 심지어 3승 모두 무실점 승리다.

경남은 타 구단에 비해 선수층이 얇다. 전력차이를 극복해온 경남은 이제 절정의 무더위 속에서 체력저하까지 극복해야 한다. 게다가 이번 주부터는 FA컵 일정까지 있다. 시즌 초반부터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선전을 거듭해온 경남이 무더위마저 이겨내고 2위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경남은 오는 25일 창원축구센터에서 FC서울과 FA컵 32강전을 치른 뒤 28일에는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 자리를 옮겨 K리그1 20라운드에서 서울과 리턴매치를 갖는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